

‘포스트 예산’ 냉기류…임시국회 성사될까

야3당 “기득권 야합” 반발…文의장·원내대표 회동 취소

민주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vs 야3당 “열흘은 열어야”

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에 야 3당의 반발이 이어져 ‘포스트 예산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 연말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갈등에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간 선행이 달라 성사 여부조차 미지수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11일 이후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야 대립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단시간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10일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취임 100일을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야 3당의 강경 행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에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거대 양당이 확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 냉각기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에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예산 정국 후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열을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문제 등을 논의하려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야 한다.

알각에선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11일)이 끝나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들어서게 되면, 상견례 차원에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각 당의 입장차가 큰 데다 연말 해의 일정으로 출국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해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수기자

이개호, 농식품부·지역현안 예산 증액 ‘주목’

내년 국가예산 편성이 끝난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및 지역현안 예산을 아우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6천59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천600억원 증가된 것으로 국회심의의 초반 쌀 변동작불금 3천242억원이 포함되는 악재를 맞았지만, 농림위 위원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감액분을 다른 농업분야로 복원시키는 것은 물론 115억원을 추가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 장관은 증액사업 대부분을 농업생활 SOC, 정책자금지원, 발작물 육성 등 농민실생활 지원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지역사업의 경우 신규편성 하거나 증액시킨 ‘순수 증액’사업이 총 13건, 197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반영사업 총사업비를 합치면 606억3천만원에 달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1인당 평균 2~3건 정도의 증액 성과를 거두면 대성공이라는 국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의원의 이번 증액 성과는 주목되



는 결과다.

실제 담양군은 ▲국립한국정원연구원 조성사업 타당성연구용역비 2억원을 비롯해 ▲국도 13호선 담양 무정면 오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함평군은 ▲국도 24호선 함평-해보국도시설개량 50억원(국비총액 70억원) ▲국도 23호선 나주 동강-함평 학교국도시설개량 10억원(국비총액 58억원) 등 굵직한 SOC예산이 증액됐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사업 등 관련사업 4건 33억원 ▲군남 보건지소 신축 5억5천만원 ▲국도 제22호선 묘량면소재지 진출로 신설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장성군은 ▲축령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2억원 ▲삼서면 흥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 의원은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 두 배의 책임감과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발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손학규 “연동형 비례제 보장 때까지 단식”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文정부 협치 자세 바뀌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동안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있던 당의 체계를 정비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아직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손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고심하고,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언론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해 하나가 됐는데 뿌리가 워낙 다르다. 중도개혁으로 통합을 하고, 개혁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하나가 되다 보니 정체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 서도 “현대정당은 이념적 스펙트럼 폭이 넓은데, 그전 앞으로 차츰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후 독일 유학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전날 위로와 응원의 전화를 걸어왔고, 유승민 전 대표도 건강을 염려하며 로텐더홀에 두번째로 찾아왔다고 소개하며 “장당 주역인 두 분 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단식 만류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단식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단식을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단식의) 최종 목표”라며 “3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계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살아온 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승자독식 양당제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단식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협조해주는 것을 협치라 오해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협치에 대한 자세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주승용, 여수시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주승용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여수)은 10일 여수시 소라면 상세동-원봉두 일원 주민 통행불편 해소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세동-원봉두 시도11호선 개설사업은 주민 교통편의 및 시립공원묘지 접근로 개선 등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사업에 총 57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여수시 재정 여건상 준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최경환 ‘5·18성폭력 피해자 보상법안’ 발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은 1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으로부터 무고하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며, 국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도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며 “보상금 지급신청기한을 연장해 피해자들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다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임야삽니다

당일신속처리
010-6834-7400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을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7100만원
 - 현재 보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 문의. 010-6834-7400

상가빌딩 50% 급처분

급매
전문



아파트 2,300세대 대로변 상가빌딩 {급처분}

---훗가20억 급처분11억(보8,000 월600가능)

일반상업지 대지445㎡, 건평1,544.83㎡

***리모델링90% 공사중

==월세용 및 투자용 최적

급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경매투자

오 천 경 매
010-3605-5000